

# ‘사건브로커’ 결심공판날 광주·전남 경찰서 등 8곳 압수수색

### 검찰, 브로커 성씨에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 구형 광주청장 지낸 치안감 수사 확대...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

#### 인사비리 수사 본격화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인사 비리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과 동시에 경찰 인사비리와 연관된 광주경찰청장 집무실, 전남 일선 경찰서 서장실을 비롯해 모두 8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 이래 현재까지 인사청탁으로 전·현직 경찰관 3명이 구속됐고 입건·압수수색 대상자만도 10여명에 달하는 등 수사 확대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2022호 법정에서 열린 성씨와 공범에 대한 변호

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받았다. 주범인 성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선고를 앞둔 결심재판으로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종 진술을 진행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형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의 동생이 중간에 일부 금액을 가로챈 적이 있었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동생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고 돈을 전달 한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해 다소 혼선이 생겼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씨의 변호인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고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했다며 금액들은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를 예시로 들며 “B씨 형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부 성씨에게 있던 점을 들어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면 공범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은 대대적으로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전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C치안감의 서울 주거지와 현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을 비롯해 광주남부경찰서, 장성경찰서, 보성경찰서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같은 시간 광주광산경찰청 첨단지구대와 광주경찰청 일부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 치안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C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시절(2021년 7월~2022년 6월)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C 치안감 재직 당시 인사에 관여된 현직 경찰들에 대한 휴대전화화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 담당했다. 이날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교부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교부 등 혐의로 목포경찰서 경정과 같은 경찰서 지구대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 상태인 이들은 전직 경감(구속)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씨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긴 채 발견된 전직 전남경찰청장 D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희생된 공사 관계자 6명의 2주기 추모행사가 11일 오후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추모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재심결정 대법원으로

### 순천지청 “위법 수사 없었다” 불복

검찰이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개시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광주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로 재심개시는 원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항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부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74)씨에게 무기징역, 딸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녀가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주

장을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항고를 담당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처음부터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드러난 B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를 수사를 받은 사건”이라며 “자백에 대한 위법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주장을 기존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A씨 부녀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존 판결은 경계성 장애에 있는 B씨의 진술 영상보다는 진술조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면서 “검찰이 왜곡된 증거로 판단된 과거 재판 결과를 항고 이유로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A씨 부녀의 손을 들어주면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무면허 음주운전 여자친구 도우려 블랙박스 폐기한 30대 남자 벌금형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없애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심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

전을 한 여자친구B(29)씨의 운전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SD카드를 하루 뒤에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와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

해 범행한점,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부인 저수지 살해’ 무기징역 60대 19년만에 재심

진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화물차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오경미)는 무기수 A(66)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40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사망 당시 4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해사건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출몰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